

한국의 소방행정서비스



공 하 성

이화전기통신(주) 기술이사
삼척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강사
(E-mail : 123218@hanmail.net)

1. 서론

소방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지구촌 인류의 삶은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풍성히 누리고 있지만 한편, 이의 발달로 인하여 생리적·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이 증폭되어 감으로써 인류를 불안과 공포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도시화 현상이 급속히 심화되면서 한정된 토지에 건축물은 밀집화·고층화·심층화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그 건축물 내부에는 수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하여 각종 이용시설물, 생활품과 집기류 등을 진열 또는 비치하여 최대의 편의를 누리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건축물이 고층 또는 심층화되어 있고 건축물 내부 이용물의 대부분이 가연성 내장물이며, 전기·가스·유류 등을 이용한 각종 열기구와 화기취급 시설물까지도 산발적으로 사용하면 서 다수인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어 대형화재 발생의 위험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복잡다양한 소방행정 여건하에서도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수준이 반드시 낮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일부 상황을 통하여 느낄 때도 있다. 화재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체 소방시설이 자동으로 작동되었거나 사람이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초기소화에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다.

이때마다 “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종사원의 평상시 소방훈련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를 조사해보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당사자가 평소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현대소방행정이 사회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방행정의 발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 소방행정의 발달사

가. 삼국시대

⇒ 화재가 사회적 재앙으로 등장

삼국시대에는 사회구성원들의 계층이 분화되고 전쟁이 잦았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도성이나 읍성에 거주하였으며, 축조술이 발달되어 왕궁, 관춘, 성문 등 대형건축물을 세우고 인가를 인접하여 짓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화재가 사회적 재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라 미추왕 원년(서기 262년)에는 금성 서문 화재로 인가 백여가구가 소실되었고, 진평왕 18년(서기 596년)에는 영흥사 화재시 왕이 친히 이재민을 위문하고 구제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화재를 사회적인 재앙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방화 의식이 이때부터 싹텄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고려시대

⇒금화제도의 시행

고려시대는 삼국시대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도읍지 개성은 건물이 밀집해 있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 시대에는 금화관서의 역할을 군 조직에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화자나 방화자에 대하여 엄히 처벌한 기록도 있다. 문종 20년(1066년)에는 운흥창고 화재를 계기로 모든 창고에 금화관리를 특별히 두고 어사대가 때때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다. 조선시대

⇒금화법령의 제정과 금화관서의 설치



Fig. 1 조선시대의 방화수

경국대전편찬으로 조선왕조의 금화법령이 그 골격을 갖추었고 세종 8년(1426년)에는 한성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금화관서인 금화도감을 당시 병조의 예속으로 설치하였으며, 이후 성문도감과 병합하여 수

성금화도감이라 칭하였다. 또 마을마다 5가구를 1개의 통단위로 묶어 화재발생에 대비토록하는 5가작통법을 시행하였으며, 지방에서는 도둑과 화재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용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금화규정·금화군·멸화군·지방의용금화조직 등의 제도와 방화성 도시계획이 최초로 이 시대에 시행되었으며, 사다리·저수용기·흡수구 등 소방용기구도 세종 5년(1423년)에 처음 만들어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

라. 광복과 미 군정시대(1945~1948)

⇒자치소방제도의 최초 시행



Fig. 2 장갑차의 소방홍보(1940년대)

세계 2차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경찰에서 운영하던 소방행정을 중앙소방위원회(소방청), 도 소방위원회(지방 소방청) 및 시·읍·면소방부를 창설·운영함으로써 경찰에서 독립된 자치소방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다.

마. 정부 수립 이후(1948~1970)

⇒국가소방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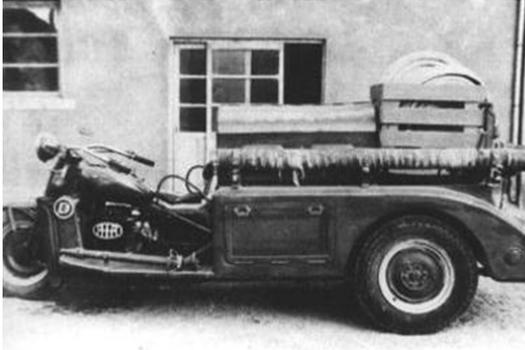


Fig. 3 삼륜 소방차(1960년대)

1958년 3월 11일 최초로 소방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중앙은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로, 지방은 경찰국 소방과로 예측되고, 전국 50개 소방서는 24개 소방서로 축소·조정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경찰의 신분을 지녔다.

바. 발전기(1970~1992)
⇒국가+ 자치소방체제



Fig. 4 농촌봉사활동(1970년대)

경찰행정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던 소방은 1972년 8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서울과 부산은 자치사무, 기타 시·도는 국가사무로 다루어지는 이원적 행정체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75년 8월 내무부 민방위본부(소방국)가 신설

운영되면서 법령·제도면이나 소방력의 관리·운영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1978년 3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간으로 소방공무원법을 제정·운용함으로써 업무의 특성에 맞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다. 1978년 7월에는 소방학교 직제가 제정 공포되고, 1980년에 그 건축물이 완공되어 소방인의 숙원사업인 소방전문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1년 12월 25일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고(사망 163명, 부상 63명) 이후 수많은 대형화재 사례를 교훈삼아 건축법 등 소방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각종 제도가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속에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사. 성숙기(1992~ 현재)

⇒시·도 광역자치 소방체제

1991년 12월 “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소방법(제3조)을 개정하여 1992년 4월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도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니게 되었으며, 소방수혜가 시·도 전지역에 골고루 미치도록 소방체제를 보장하고 정립하였다.

3. 119구조대와 119구급대

대전광역시를 예를 들어 119구조대와 119구급대의 활동상황, 구조, 구급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가. 119구조대



Fig. 5 119구조대

119구조대는 1988.81 중부소방서(당시 대전소방서)에서 9명의 인원으로 화재, 가스폭발, 건물붕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긴박한 위험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발족되었다.

인명탐색용 장비를 비롯한 구조용 장비 등 각종 첨단장비 및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인명구조 기술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119구조대는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에 의하여 '94. 12. 31 서부소방서, '95. 9. 13 동부소방서, '96. 4. 8 북부소방서의 구조대가 연이어 발족하여 지금은 4개소방서에 각 1개대씩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총 4개대 4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19구조대는 2002년 한 해 동안 678건의 활동으로 991명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였다.

<Table. 1> 119구조대 현황

구조대수	구조대원수(명)		
	계	전문교육	군특수부대
4	44	28	16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년 기준 활동건수	738	887	807	659	678
구조인원(명)	1,215	1,488	1,324	1,098	991

<Table. 3> 유형별 구조연황

년도	계	교통사고	화재	기계승강기	수난사고	약물사고	산악사고	기타
1998	1,215	332	99	253	32	4	26	469
1999	1,488	483	46	260	21	5	15	658
2000	1,324	340	143	297	33	6	15	489
2001	1,098	203	98	414	30	6	17	330
2002	991	165	61	311	20	4	16	414



Fig. 6 119구급대

119구급대는 1981년부터 대전, 부산 등 6개 소방관서에서 야간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특수시책으로 시범 운영한 것이 최초의 소방 119구급대이고, 83년 소방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의 기본업무로 채택됨으로써 2002년 현재 대전지역에 26개대 119명의 구급대원이 23개 소방파출소에 배치되어 24시간 응급환자 긴급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119구급대원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증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나 보호자를 응급조치한 후 원하는 병원으로 무료이송해주고 있다.

이용시민도 90년 3,267명이었으나 해마다 응급환자 이송실적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10년간 136,412명을 이송하였으며, 2002년 한 해 동안 31,615명을 이송, 하루평균 87명의 시민들이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93년부터 여자가간호사의 특별채용, 응급구조사 양성,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 양성 전문교육 등을 받은 모든 구급대원이 119구급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업무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등 정성을 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다.

<Table. 4> 구급대 현황

구급대수	구급대원수(명)				
	계	간호사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2급	전문교육
26	122	11	12	61	38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고건수	30,021	32,981	35,749	35,749	39,260
이송건수	24,212	35,912	30,943	30,891	30,619
이송인원	25,563	38,146	32,101	31,754	31,615

년도	계	만성질환	금성질환	입산부	사고부상	약물중독	교통사고	기타
1998	25,563	7,156	7,450	289	4,605	600	3,515	1,948
1999	38,146	14,770	9,014	324	4,883	631	4,441	4,083
2000	32,101	9,861	9,391	308	4,927	529	4,383	2,702
2001	31,754	8,859	10,678	151	4,316	583	3,650	3,517
2002	31,615	7,138	12,363	129	4,314	567	3,420	3,682

가. 광주광역시

① 소방시설 무료 정비봉사대

소방시설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무료봉사대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미한 소방시설 고장은 관계인 입회하에 무료로 부품을 교체해 주며 중요설비 고장시에는 고장내역 및 고장수리를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소방시설 사용법 또는 자체관리요령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② 화재피해복구안내소 설치운영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연중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으로는 세금감면제도, 화재보험 관련 이용 및 화재발생 후 복구요령, 소손된 화폐의 교환방법, 소방활동과 관련된 상식과 유관기관 안내 및 연락처 등을 안내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③ 구급차 예약이송제

독거노인, 장애인 또는 정기적 검진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 또는 치료를 위한 119 구급차 예약이송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예약 방법은 119 또는 거주지 관내 소방파출소에 전화하여 병원 진료 일시, 주소, 병원명을 예약하면 예약일에 구급대원이 예약자 자택을 방문, 정기검진 병원에 이송하여 주고 검진 종료후 119에 전화 또는 검진 종료시간을 알려주면 구급대원이 병원에서 자택으로 이송하여 주는 제도이다.

④ 119 시민안전교실 운영

시민들 스스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구급업무 활성화를 위해 119 시민안전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교실에서 운영되는

교육과목은 심폐소생처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응급 처치법은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며 일요일에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특별반도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출장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5) 119 사랑의 봉사활동

소속 소방공무원과 부녀의용소방대원이 지체장애 인 수용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한달에 한번씩 방문 지체장애인들에게 혈압·혈당측정 등 건강상담 및 자체 연막소독기를 이용한 연막소독, 지체장애인들의 목욕, 침구류 세탁, 실내외 청소 등을 실시하며, 체소 발의 잡초제거와 씨뿌리기를 같이하며 지체장애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6) 소방홍보용비디오테이프 무료대여

각 가정, 직장, 각급 학교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소방관련 영상물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대여 해주고 있다.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화재예방 및 전기, 가스, 위험물시설 등 안전관리요령과 소방관련 영상물 등을 비롯한 화재현장, 구조현장 및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의 활약상이 담겨 있다.

(7) 주택 소방안전점검

주택·아파트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지 소방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주택화재 소방안전점검을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조대원 5명으로 구성된 봉사반을 운영, 매일 2회씩 관내 어린이놀이터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간단한 고장사항은 즉시 보수해준다.

나. 대전광역시

(1)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Fig. 7 구조대원의 인명구조시범

지역주민의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 중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에게 소방서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견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방차방수시범 및 구조대원들의 인명구조 시범은 물론, 각종 사고의 위기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2) 119 노인봉사활동



Fig. 8 119 노인봉사활동

소외받기 쉬운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① 의료진료 및 지원 (일반진료, 한방진료, 침술, 수지침, 혈압·체온 체크 등)

- ②개인위생 및 주거환경 관리 (이·미용, 목욕, 신체 안마, 급·배수지원 등)
- ③시정안내 및 소방안전 홍보 (시정안내, 민원대행, 화재발생요인점검 등)
- ④소외감 해소와 레크레이션 기회 제공 (노래방기 기등제공)
- ⑤기타 간소한 다과 및 음료수 등 접대

③ 불조심 응변대회 및 작품시상식
 관내 초등학교생들에게 불조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조심 응변대회 및 표어, 포스터, 글짓기 등을 공모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시상상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불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지도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1) 어린이 유도교실 운영



Fig. 9 어린이 유도교실

인천광역시는 97년 8월부터 어린이 유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 유도관을 확보하여 참가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단자인 소방관이 성심성의껏 지도하고 있다. 현재 20명 내외의 인원이 고정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각종 유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② 어린이 소방대조직 운영
 어려서부터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소방대 및 119시범 어린이구조대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하계수련대회 및 어린이안전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재예방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다.

(3) 119봉사활동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돕는 양질의 소방서비스 영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안전관리를 위한 소방검사, 소방·전기·가스·가전제품 등의 무료정비활동, 급수지원 및 침수지역 배수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라. 대구광역시

(1) 소방고장시설 무료수리

각 소방서 민원실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소방시설 중 경미한 부품 고장으로 기능이 불량한 설비에 대하여 현지에 직접 출동하여 무료로 부품을 수리해 준다.

②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어려서부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소화기 사용법, 화재예방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하며, 구조차량을 동원하여 아파트단지 등을 정기적으로 직접 순회 방문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위해요인을 제거해주고 있다.

③ 고지대 급수지원
 지대가 높아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가뭄 지역에 소방차를 동원하여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5. 결 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오면서 그때 그때의 시대적 상

황과 환경에 맞는 소방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 지역의 소방본부에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봉사활동분야가 너무 단조롭고 획일화되어 있어서 형식상의 봉사활동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둘째,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방서가 불만 끄는 줄 알지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소방서에 이러한 봉사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준비하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19노인봉사활동의 경우를 보면 노인들에게 의료 진료, 이·미용봉사, 물질봉사 등을 하고 있는데, 시작 당시에는 의사 및 이·미용사 등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나 그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 도중에 봉사활동을 중단한 예가 간혹 있었다.

준비의 소홀로 인하여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불신감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완벽한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소방은 과거의 잘못된 소방행정 및 현재

의 소방행정의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현 시대적 상황하에서 국민의 생활속에 더욱더 깊숙이 파고드는 바람직한 소방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참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선진소방상 구현에 전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